

社說

남북불교 합의는 화합 디딤돌

조계종과 조불련이 남북불교 교류와 관련해 9개 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에 따라 3월에 5000여 명의 불자들이 금강산 신계사를 순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막혀 있던 금강산 길을 다시 여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성과다. 부처님오신날과 6·15선언 10주년에 즈음해서 평양에서 남북불교계가 동시·합동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평양의 불교 문화유적 복원도 추진된다.

합의 내용 중 수년이 걸리는 문화유적 복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복원을 진행하면서 남과 북의 수행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머리를 맞출 것이다. 때론 다름을 확인하며 진통을 겪기도 하겠지만, 민족의 문화유산이라는 장(場) 안에서 함께 한다는 인식이 이를 것이다.

남북불교교류는 불교 안에 머무는 사안이 아니다. 민족의 오랜 아픔을 치유하는 대자불사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불교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것을 절감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남북의 화해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조계종과 조불련의 합의는 시동을 건 것이다. 이후 실무적인 논의가 차근차근 이어져, 책임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승 스님은, 남북교류는 이유를 불문하고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이라면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성과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화합을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

해인사 문제 단호하게 대처해야

강제 경매, 토지 매각, 골프장 등 범죄조직 해인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떠돌고 있다. 내용인즉, 남쪽당인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이 강제 경매에 부쳐졌다. 또 '대장경 천년 엑스포'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합천군청이 해인사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해인사가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해인사 인근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해인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다. 조계종 종정이 주석하는 사찰이며, 세계문화유산인 판전과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 성지이며, 인류의 자산이다. 해인사가 건재함으로써 한국불교와 조계종은 당당하고 드높다. 국민들은 해인사를 큰 자랑으로 여긴다.

해인사를 둘러싼 불미스런 일들에 대해 조계종이 최근 불교단체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골프장 건설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불암 무량수전 강제 경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관련자의 종법 위반 여부도 가리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주요 사찰의 문제에 대해 총무원이 시간을 질질 끌며 유아무아했던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 조사가 및 맞팔 경우 종단의 정치문제로 비화돼 소모적인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고, 수행환경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1월 29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조건 없는 연내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둘러싼 청와대 내의 혼선과 기존 입장 변화로 인식되는 데 대한 부담, 지지층의 반발 등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 전제하에 남북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확고한 원칙'을 강조했다. 파장을 의식해 원래 입장으로 되돌아가는 했지만 연내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잠재의식의 단면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 동안의 남북관계 재조정에 실패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강화됐다. 올해까지 남북관계를 풀지 못하면 임기 내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 대통령의 임기라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면 올해 정상회담 성사 등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1월 4일 새해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조성돼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에는 실무접촉 외에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조문사절과의 면담과 비밀접촉을 통해서 북측이 정상회담 용의를 표시하고 있



불자 세상보기
고유현
동국대 교수 · 북한학

남북정상회담 추진 배경과 한계

지만 북한 태도변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 북한 지도부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면전환을 결심하고 대남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실리는 챙기면서 체제위협에는 단호하게 맞서는 북한의 이중노선 때문에 남측은 북한의 유화 움직임을 경계 중이다.

북측이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안보차원과 대북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실리차원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최대관심은 평화협정 체결문제이다. 북한은 비핵화 전제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근본문제 부각시키면서 연일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내놓고 있다. 남북갈등이 지속되는 한 평화협정 체결이 어렵기 때문에 분위가 조성 차원에서 북측이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켓발사와 핵실험 이후 유엔차원의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난 가중도 남북정상회담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 동안 남측은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을 중단했다. 매년 들어오던 남측의 인도적 지원이 끊기던 때인 식량난 가중, 제재에 따른 외화부족, 화폐개혁에 따른 혼란 등으로 북한의 경제사정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

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과 남북정상회담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야 하는 부담과 함께 후계구축을 위한 사전정비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김정일 위원장으로서 후계구축의 사전 정치작업의 일환으로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산'이라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비핵화 과정도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라 짐작을 부각시키고 있다.

핵문제해결에 진전이 없는 현시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전통적 지지세력 중의 일부에서는 조건 없는 정상회담 추진에 강한 의구심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남측 정부는 대가없이 핵문제를 주 의제로 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우선 해결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북측은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가지면서 '핵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로 규정하고 미국 또는 6자회담에서 다루려 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남측이나 북측 어느 한쪽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정상회담 성사가 어렵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2월의 테마-인연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에게 좋은 도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수행의 절반을 완성한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난야! 그렇지 않다. 좋은 도반이 있다는 것, 좋은 인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완성한 것과 다르지 않느니라." <잡아함경>

부처님은 늘 이렇게 좋은 벗과 인연의 소중함을 말씀했다. 수행자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보살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연장자를 존중하고 아랫사람 보살핌을 피력하시곤 했다. 함께 탁마하며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이를 일컬어 도반(道伴)이라고 한다. 절에서 맛있는 간식을 '차담'이라고 하는데, 함께 인연 맺은 도반들과 차를 마시면서 법담을 나누며 서로의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길 바라는 뜻에서 '승가(僧家)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배품과 용서가 좋은 인연 짓는다

조선 초기의 선지식이었던 환허 스님은 "이 한잔의 차는 옛날의 내 정(情)을 표하는 것... 그대는 한번 맛보시오"라고 하며 다른 스님들과의 따스한 인연을 표현하기도 했다.

좋은 인연은 비단 승가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매우 소중하다. 현재 우리가 맺고 있는 인연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과거 어느 생애에서부터 시작된 소중한 인연이다. 가을의 국화꽃 한 송이가 피는데도, 봄의 소쩍새와 여름의 천둥이라는 시간적인 연기 법칙이 존재하며 물·공기·햇빛·바람 등 공간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 한 개인으로 볼 때도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주위 모든 존재들과 인연화합으로 이뤄져있다. 즉 부모·형제·친구 등 주위의 많은 이들과의 얽힘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으며 결국 이런저런 인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미치 앨봄(Mitch Albom)의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우리가 인연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전에 한번쯤은 만난 사이며 서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또, 타인이라 아직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일 뿐이다"라는 구절이다.

우리 인연은 다 전생의 가족이다. 인연 맺은 이들과의 진정한 소통과 사랑을 나눔은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일 것이다.

그런데 가족 간의 인연이든 친구와의 인연이든, 그냥 맺어졌다고 해서 좋은 인연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중한 인연을 만들고 어떻게 좋은 인연으로 지속되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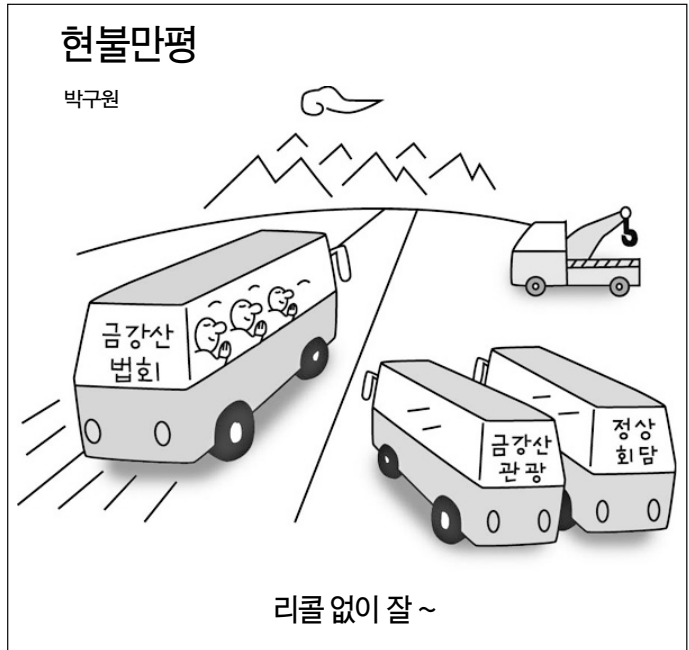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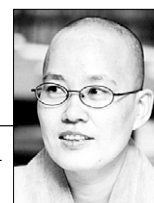
첫째,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거듭나야 하는 법이다. 상대방의 배품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좋은 선지식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두번째, '용서'라는 이름으로 좋은 인연을 엮어 가야 한다. 우리 모두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이다.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사람이다. 이 소중한 사람들끼리 좋은 인연을 꽃피운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6	회시중 연불닷컴 실시간 뉴스 톨타뉴스 불교포탈 부다피아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	---	---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	--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한불교정토선종 창종 대법회를 마치고

귀의 삼보하옵고
마침내 사부대중이 넓고 깊은 공덕을 이뤄 모든이에게 두루 회향코자 대한불교정토선종창종 법회의 발걸음을 내 댔었습니다.
정토선(淨土禪)은 나무아미타불을 일심염불하여 선과 정을 동시에 닦는 자성염불의 수행으로 명심견성을 목표로 정토발원을 세운 사부대중이 동참해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정토선수행에 동참해 견성성불의 길로 나가길 발원합니다.

2010년 2월 10일
대한불교정토선종 총무원장 **굉승 등정**

교 구 원 장

• 총본산 고성 서방사	• 5교구 부산 수영구 대성사	대 명
• 6교구 양산 관음정사	• 8교구 대구시 북구 명곡사	보 해
• 11교구 영천 심곡사	• 12교구 포항 유리사	법 철
• 13교구 전북 지장암	• 15교구 수원시 정월선원	체 정
• 월로원 법 천	• 교육원 등 법	• 문화원 지 연
		• 선 원 무 상

대한불교정토선종 총무원 경남 고성군 상리면 고봉리 73-1 서방사 ☎ 055)673-3719

- 입 중 안 내 -

- 정토발원 수행으로 명심견성 하려는 사부대중
- 입중서류 총무원 비치
- 입중문의 총무원 및 각교구